



“꽃화랑과 로맨스 좋지만 진짜 연애 해보고 싶어요”

최근 종영 KBS 2TV ‘화랑’서 흥일점 고아라 소속사 이적 “좋은 배우들 많이 만나고 싶었죠”

“(박)서준 오빠와 (박)형식이, 서로 칼 겨누면서 애를 많이 썼고 제가 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베스트 커플상’ 양보해야 할까요?”

배우 고아라(28·사진)는 최근 종영한 KBS 2TV 월화극 ‘화랑’에 대해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다.

여주인공 아로로 분해 선우(박서준 분), 삼맥중(박형식)과 삼자 로맨스의 한 가운데 있지만, 선우와 삼맥중의 브로맨스(남자 간 친한 우정)도 호평받았던 점을 너그럽게(?) 인정했다.

고아라는 두 남자 주인공 중 누가 더 이상형에 가까우냐는 질문에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극 중에서 아로는 이미 처음부터 선우에게 훨씬 마음이 기울어 있었으니, 삼맥중에게 불리한 게임이긴 했다.

고아라는 “삼맥중도, 선우도 너무 멋있고 각각의 매력에 있으니 고르기가 어렵지만 아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형이 선우”라면서 “제 개인적인 이상형은 이제 찾아가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극 중 역할 말고, 두 남자 배우와 호흡을 맞춘 소감에 대해서 “형식이와는 사전에 신(scene)을 많이 맞춰봤다”며 “저도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인데 다가가려 하면 형식이가 먼저 옆에 와서 대사를 같이 해주었고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준오빠는 화랑들과의 액션 신이 많았고 저랑은 멜로도 해야했기에 바빴을 것”이라며 “말을 타고 저를 구해주는 등 액션 장면이 많았는데 현장에서의 배려가 인상 깊었고 고맙았다”고 강조했다.

‘화랑’은 가장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100% 사전 제작됐다.

그러다 보니 촬영은 진작 끝났지만 방송 모니터링은 지금 하고 있으니 1년간 드라마를 찍은 기분이라고.

고아라는 “일반 드라마는 3개월이면 마무리 되는데 ‘화랑’은 거의 1년을 안고 있던 작품이라 오늘에서야 정말 끝나는 느낌이 든다”며 “저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본방 사수’를 했다”고 말했다.

시청률의 측면에선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을 터. SBS TV ‘남만닥터 김사부’의 퇴장 후 반등을 노렸으나 후속작 ‘피고인’과 MBC TV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고아라는 “현장에서 배우와 스태프가 의미투합해 작품을 하는 것에 의미를 뒀기 때문에 연연하진 않는다”며 “또 40·50대 어머니들이 은근히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주신다. 길에서 알아보고 응원해 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꽃화랑”들 사이에서 흥일점으로 연가하는 행운을 누렸다.

고아라는 “많은 분이 저한테 부러운 촬영 환경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클하게’ 인정했다.

그러면서 “또 촬영 시기가 매우 덥다 보니 남자분들은 촬영하지 않을 때는 한복을 벗고 민소매 티 한 장만 입고 있었다. 참 좋은 현상이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고아라는 ‘화랑’을 찍으면서 오래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배우 이정재, 정우승, 하정우 등이 소속된 아티스트컴퍼니로 이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에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됐고 아티스트컴퍼니에서 좋은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좀처럼 붉은 금방 온다. 친구 중에서는 빨리 결혼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고아라는 “언젠가 깨질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운명의 남자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공개연애를 할지는 다쳐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버랜드에 꼭 한 번 같이 가보고 싶다”며 “소소한 것들도 좋고, 남자친구가 있다면 뭐든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콘서트서 여성비하 노래 선곡 ‘시끌’

소속사 측 “팬들이 좋아하는 곡이라 뻔 이유 없어”

그들 방탄소년단(사진)이 지난 18~19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에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노래 ‘호르몬 전쟁’을 불러 뒷말이 나온다.

‘호르몬 전쟁’은 2014년 발표한 정규 1집 ‘다크 앤드 와일드’(DARK & WILD) 수록곡으로 ‘여자는 최고의 선물이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미형 문화제’ 등의 가사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여성 비하 논란이 일자 “방탄소년단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낸 바 있다.

또 방탄소년단은 최근 신곡 ‘낮 투데이(Night Today)’의 가사로 ‘맨스플

레인’(mansplain·남성이 여성을 가르치려 드는 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낮 투데이’의 가사 중 ‘널 가두는 유리 천장 따윈 부숴’라는 가사가 ‘맨스플레인’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유리 천장’이란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멤버 램몬스터는 공연 전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아이돌이 이런 가사를 쓸 자격이 되느냐는 글도 있던 데라”라며 “우리 역시 사회의 부조리에 있어 침묵하지 않고 문제 제기

에 동참하고 부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 비하 논란이 인 곡을 공연 곡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콘서트 선곡은 히트곡 위주로

구성했다”며 “팬들이 좋아하는 히트 곡이기 때문에 굳이 뻔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여성’ 논란과는 별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을 두고 방탄소년단을 ‘개념돌’로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신곡 ‘봄날’은 친구를 잃은 아픔을 노래한 곡으로, ‘봄날’의 뮤직비디오에는 노란색 리본을 걸어서 회전 그네 등이 등장해 세월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램몬스터는 “사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우선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램몬스터는 “‘봄날’ 뮤직비디오는 노래를 시작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듣는 이나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은 감상하는 분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상진·김소영 아나운서 4월 결혼

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37)이 MBC 김소영(30) 아나운서와 오는 4월30일 결혼한다.

오상진 측은 21일 이같이 밝히며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상진과 김소영 아나운서는 2015

년부터 교제해왔다.

오상진은 2006년 MBC에 입사해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으며, 2013년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오상진의 대학 후배이기도 한 김소영은 2012년 MBC에 입사한 이후 ‘뉴스투데이’ 등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오상진 김소영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이웃 소리> (김남주)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수목드라마 <김과장>(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시사기획 창 (재) 55 감성애니 하루 2 (재)	50 2017 샤프로 동계 아시안게임	00 주말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미생>(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고품지락 55 테마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종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생로병사의 비밀 (재)		20 텔레몬스터 30 드라마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2	50 방학특선 청소년 토크콘서트 <드림고!>(재)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재)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해! 동물탐험대 (재) 55 프리파라 2	00 토크콘서트 화통
3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4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이사 콩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5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봄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6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15 TV 블로그 고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7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2017 샤프로 동계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8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9	00 시사토론‘10’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재)	00 수목드라마 <시인당, 빛의 일기>
10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2부작 <행복한 노후로움>	10 추격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1	30 동행(재)	10 동계 아시안게임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프랑스 와인여행> - 피라미드 프로젝트까지	09:40 부모-위대함 엄마	14:55 모피와 친구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0:30 한국기행	15:05 두기담(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운 침치볶음, 미역줄기볶음)	15:20 꼬마7시 마이크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08:45 최고다 홈쇼핑 천국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요술상자(2)
09:00 시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토키톡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레이디비그(재)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랜즈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두다디(재)
		12:40 지식채널 e	16:30 Why - 최고!라! 호기심딱지(재)
		12:45 EBS 초대석	16:45 당동영 유치원 1~3(재)
		13:40 오 마이 미래 2035 (신규한집 - 식물 의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3:50 그림을 그려요(2)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3:55 코코롱3(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4:25 책과 땅	19:00 레전드하이라이프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명의(재)
			20:40 다큐 오늘 (겨울 바다, 대구)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의 낙원, 카나리아 제도> - 화려한 중세, 테네시(재)
			21:30 한국기행 <겨울 산중 별난 인생 - 바람 부는 대로>
			21:50 EBS 다큐 프리덤 22:45 극한직업 <아웃도어 용품 관리자>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공공화생물 휴지자 사러진 이유?>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음 1월 26일 庚辰)

<p>子</p> <p>48년생 전체적인 정황이 본인의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자. 60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72년생 사람이 깊은 이는 마음 또한 깊은 법이다. 84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74</p>	<p>午</p> <p>42년생 수리에 따르면 무탈하리라. 54년생 머지않아 길조가 상승할 것이니 수용할 대비를 하라. 66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78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90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65, 38</p>
<p>丑</p> <p>49년생 지나 온 세월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61년생 이전투구의 양상을 띠 수 있다. 73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느니라. 85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64</p>	<p>未</p> <p>43년생 바뀔 수 있다. 55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실감이 크겠다. 67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79년생 성과가 불만족스럽겠다. 91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권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8, 06</p>
<p>寅</p> <p>50년생 목전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 일단임하고 불일이다. 62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74년생 소폭의 이동수가 비칠 뿐이다. 86년생 상사로운 기운이 비추니 곳곳에 충돌이로다. 행운의 숫자 : 79, 10</p>	<p>申</p> <p>44년생 예정되어 있던 돈은 들어 올 것이니 조바심은 버리자. 56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68년생 역사지해보면 답이 나온다. 80년생 지연된다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22</p>
<p>卯</p> <p>51년생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63년생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75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87년생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접하는 것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30, 17</p>	<p>酉</p> <p>45년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7년생 발버둥치면서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 나타나 있다. 69년생 지속적이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1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모여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34</p>
<p>辰</p> <p>52년생 소용없던 일이나 내버려 두라. 64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바이다. 76년생 호사다마오, 새옹지마에 비유 할만 하므로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요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88년생 생 반박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50, 97</p>	<p>戌</p> <p>46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면 무의미 하느니라. 58년생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70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면 금상첨화이리라. 82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야 말 것이니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72, 25</p>
<p>巳</p> <p>53년생 단칼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5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임점을 이룬다. 77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 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89년생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75, 18</p>	<p>亥</p> <p>47년생 우연한 일지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다. 59년생 매킨더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되리라. 71년생 협의하여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83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5, 1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